

이정규 “파이널A 목표...기대에 걸맞은 축구 선보일 것”



“심장이 뛰는 한 광주팀에, 기대에 걸맞은 선보를 선보이겠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는 지난 24일 제8대 감독으로 이정규 감독을 낙점했다. 광주가 이 감독을 선택한 이유는 광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때문이다.

이정규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하며 내부 사정권 선수단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경험도 풍부하다. 이 감독은 만 30세의 이른 나이에 우석대학교 수석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의대학교, 중국 리장FC, 부경고등학교, 중남아산FC, 광주FC 서울이랜드FC 등 다양한 현장을 거쳤다. 특히 2022년 광주FC 수석코치 부임 이후 K리그2 다이렉트 승격 및 우승, 2023년 K리그1 3위 달성과 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 구단 역사에 남을 성과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감독은 수석코치 역임 시절, 특유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이 감독은 최근 구단 인터뷰를 통해 “광주에서 지난 3년간 많은 것을 배우며 지도자로서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며 “구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부임 소감을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만, 프로팀 감독으로는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 감독은 “수석코치는 감독을 보조하며 팀 운영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감독으로서 팀 전체 운영과 방향성, 선수단이

광주는 새 시즌 축구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아시아 연대기여금 미납 여파로 FIFA로부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계약(F.A) 선수의 이탈과, 군입대 문제 등 다양한 약제가 겹쳐졌다.

더욱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야 한다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이 감독은 “그런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핑계보다 그동안 잘 준비해 온 지도자로서의 역량으로 증명해내고 싶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다가오는 시즌 목표는 파이널A 진출이다.

이 감독은 “우선적인 목표는 파이널A 진출이다”며 “앞으로 훈련과 시즌 준비 과정을 통해 선수들과 함께 목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감독은 “광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심장이 뛰는 한 광주팀’이었다. 제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 그 문구를 계속 강조하며, 그 말을 걸맞은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며 “팬분들의 격려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하며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3년간 광주 수석코치 역임...선수단 높은 이해도 강점 프로팀 첫 지휘봉...대학팀 등 지도자 현장 경험 풍부 “공격 축구 바탕...적극 압박하는 광주다움 이어갈 터”

나아가야 할 게임 모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은 광주가 지금까지 보여준 축구와 일맥상통하다.

이 감독은 “광주의 축구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과정에 함께 해온 만큼 광주만의 축구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공격적인 축구를 바탕으로, 공간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광주다움 축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L AFC 선정 올해의 순간...‘손·손·손’

‘손흥민 영입·손흥민-부앙가 환상호흡·손흥민 프리킥’ 등 3차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가 2025년을 되돌아보며 ‘최고의 10장면’을 꼽은 가운데 3개 항목을 손흥민이 장식했다.

L AF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L AFC의 8번째 시즌은 한 시대의 끝(스티븐 체룬들로 감독 사임)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손흥민 영입), 새로운 최다 득점자(드니 부앙가)의 지속적인 지배력 등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남겼다. 모든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라며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을 소개했다.

L AFC가 선정한 10장면에는 지난 8월 토트넘(잉글랜드)을 떠나 L AFC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손흥민이 3장면에 이름을 올리며 짧은 기간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음을 증명했다.

손흥민은 L AFC에 입단하고 3개월 만에 12골 4도움의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며 단숨에 MLS 톱스타로 떠올랐다.

L AFC가 꼽은 10장면 가운데 손흥민이 관련된 항목은 ‘손흥민이 이끌었다!’(SON DELIVERS!), ‘부앙가와 손흥민의 비상’(BOUANGA AND SON TAKE FLIGHT), ‘손흥민 계약’ (SON SIGN) 등 3개나 됐다.

L AFC는 ‘손흥민이 이끌었다!’ 항목에 대해 “서부권퍼니츠 준결승에서 전반전이 끝났을 때 L AFC는 0-2로 뒤졌지만 후반 15분 손흥민이 득

점에 성공하며 스코어를 2-1로 만들었고,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동점 골까지 뽑아냈다”라며 “비록 L AFC는 승부차기에서 패했지만 손흥민의 믿기 어려운 동점 골은 2026년 이후 구단의 클럽의 향방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와 같은 득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흥민 계약’ 항목에선 “손흥민 영입의 영향력은 곧바로 나타났다. 입단 사흘 뒤 시카고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그다음 주에 첫 도움을 기록하니 그다음 주엔 데뷔골을 꽂았다. 말리스전에서 나온 데뷔골은 이후 ‘MLS 올해의 골’로 뽑혔다”라며 “2025시즌(PO 포함), 손흥민은 단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 68.9분마다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놀라운 효율을 보였다. 이는 MLS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L AFC 커뮤니티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밖에 ‘부앙가와 손흥민의 비상’ 항목에선 “L AFC의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춘 지 불과 6주 만에 손흥민과 부앙가는 6경기 동안 L AFC가 뽑아낸 17골(손흥민 8골·부앙가 9골)을 합치하며 MLS 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18골까지 늘었다”라며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 AFC는 9승 4무 2패를 기록했고, 이 기간에 손흥민과 부앙가는 25골 8도움을 합작했다”고 서술했다. 연합뉴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가 2025년을 되돌아보며 ‘최고의 10장면’을 꼽은 가운데 3개 항목을 손흥민이 장식했다.



이창호 9단은 지난 1일 프로 입단 39년 4개월 만에 통산 1969승을 수확했다.



농심배 5연패를 견인한 신진서 9단(가운데).

한국기원 10대 뉴스 선정

이창호 통산 최다승 경신...신진서 농심배 5연패

세계기선전 출범·정태순 이사장 취임·영화 ‘승부’ 개봉 등

한국기원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28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올해 10대 뉴스에는 LG배·삼성화재배·GS칼텍스배·프로여자국수전 서른 둘, 이창호 통산 최다승 기록 경신, 신진서 한국 농심신라면배 5연패, 김은지 세계대회 첫 타이틀 획득,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출범 등이 뽑혔다.

먼저 LG배 조선일보 기양전과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마스터스 등 메이저 세계 기전과 하림배 프로 여자국수전,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등 국내 기전들이 30주년을 맞았다. 삼성화재배는 30주년을 기념해 본선 무대를 제주에서 개최했고, 하림배는 시상식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

이창호 9단은 지난 1일 프로 입단 39년 4개월 만에 통산 1969승을 수확해 스승 조훈현 9단이 보유하고 있던 통산 최다승(1968승)을 경신했다. 이창호 9단은 “지금껏 많은 대국을 해왔지만, 이렇게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돼 영광스럽다”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서 9단은 지난 2월 열린 제26회 농심신라면

배 세계배둑최강전 최종국에서 중국 당하오 9단을 꺾고 한국의 5연패를 이끌었다. 5회 연속 농심배 최종국에서 승리한 신진서는 개인 연승 기록도 18연승으로 늘렸다.

김은지 9단은 지난 9일 열린 제8회 오정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결승 3번기 최종국(3국)에서 최정 9단을 꺾고 세계대회 첫 타이틀을 획득했다. 올 시즌 최정 9단과 한국 여자 랭킹 1·2위를 다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김은지는 입단 5년 만에 세계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변상일 9단은 1월 열린 제29회 LG배 조선일보 기양전에서 중국 커제 9단을 종합 전적 2-1로 꺾고 LG배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변상일은 두 번째 메이저 세계타이틀을 획득했으나 커제의 ‘사석 규정’ 위반으로 추이의 반칙패와 기권패가 발생해는 란도 일었다.

지난 8월에는 세계대회 최고인 우승 상금 4억원을 내건 세계기선전이 출범했다. 신한은행이 후원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세계기선전은 지난 24일 제1회 대회를 시작했다. 세계기선전 출범으로 한국 바둑은 세계화를 꿈꾸게 됐다.

또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이 한국기원 22대 이사

장으로 취임했다. 4년간 한국기원을 이끌어갈 정태순 이사장은 2024년 11월 한국기원 부총재로 선임된 후 한국기원 신관 매일 재정 지원, 신한은행 세계 기선전 유치, 바둑 차대 연구 및 교육사업 후원 등 지속적 바둑계를 후원했다.

이어 3대 리그(KB국민은행 바둑리그·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인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가 2025년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신생팀 영림프라임창호가 창단 첫해에 통합우승을 차지했고,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는 서울 부강약품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인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는 효림이 수도도시 완주의 2연패를 막고 창단 3년 만에 통합우승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현대바둑 80주년을 맞아 공모전, 특별전시회, 바둑축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총상금 1200만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수상작은 바둑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했다.

여기에 지난 3월 26일 개봉한 영화 ‘승부’가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기며 관심을 끌었다. ‘승부’는 조훈현 9단이 바둑 신동으로 불리던 이창호 9단을 제자로 맞은 뒤 펼쳐지는 사제 대결 바둑 영화로 두 거장의 인물적 특성과 바둑 철학, 불꽃 튀는 승부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